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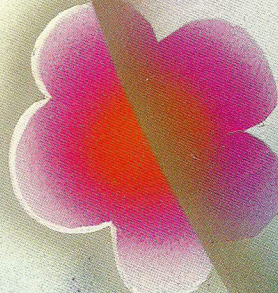
부산시립무용단

PUSAN MUNICIPAL DANCE TROUPE

꽃 입에 물고...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 붙은 정열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낭콩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리따웠던 그 아미 높게 흔들리우며
 그 석류속같은 입술 죽음을 입맞추었네!
 아, 강낭콩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강물은 길이 길이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낭콩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위에
 양귀비 꽃보다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 예술감독 겸 수석 안무자
 ● 홍민애
 ● 대본 / 오숙기
 ● 안무 / 홍기태



야·외·마·당·춤·관

'92 **7.20** (월) 오후 7:30 ▶ 용두산공원
7.21 (화) 오후 7:30 ▶ 광안리방파제
7.22 (수) 오후 7:30 ▶ 올림픽공원내 (국민생활관)

후원 :  영빈관

작 품 배 경

논개의 성은 주씨오, 진주성 전투의 慶尙右兵使 최경희의 후실이다. 빼어난 자태와 밝은 슬기를 지닌 논개는 지아비를 향한 가냘픈 조선 여인의 숭고한 사랑을 비추고 있으며, 지아비의 죽음앞에 운명을 같이한 조선의 거룩한 님으로 우리에게 널리 칭송되고 있다. 이 작품은 논개의 지극한 사랑과 숭고한 정신에 중점을 두고 논개를 통하여 靜的인 한국여인의 모습을 가냘프지만 강인한 정신세례로 재조명함으로써 이 시대의 우리에게 신선한 느낌을 던져 주기 위한 것이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속에서도 곳곳이 절재를 지키면서 지아비에 대한 사랑을 읊 論介의 숭고한 사랑을 현대인의 귀감이 되도록 무용으로 재구성하여 표현한 것이다.

임진왜란 때, 풍신수길은 제1차 진주성 전투(김시민 장군)의 패배를 설욕하고자 癸巳年에 다시 제2차 진주성 전투를 벌였다. 당시 경상도 해안일대로 퇴각한 왜적이 호남곡창지대를 차지하기 위한 교두보를 벌였다. 당시 경상도 해안일대로 퇴각한 왜적이 호남곡창지대를 차지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 벌인 이 싸움은 왜적 13만명에 대항하여 조선의 의병과 관군5천명이 10여 일의 격전을 벌였다. 義兵은 義使 김천익, 官軍은 慶尙右兵使 최경희가 지휘하여 끝까지 항쟁하여 나라사랑의 표본을 가르쳐 주고 있는 역사속의 증거가 되고 있다. 싸움의 결과는 진주성내에 있던 우리 백성 6만명이 대학살당하고 성터가 평지로 변할만큼 참혹하였다. 이때 왜장 毛谷村六助를 겨안고 축석루에서 남강에 몸을 던진 최경희의 후실 周論介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요, 우리의 연인인 것이다.

■ 나오는 사람들 ■

1. 논개(1), (2)
2. 최경희
3. 주달문(논개 아버지)
4. 어머니 박씨
4. 김풍헌 아들(병어리)
6. 이생원
7. 논개 친구들 다수
8. 마을 사람들
9. 여인들
10. 초향과 기생들 다수
11. 왜장(모곡촌육조)과 왜병들 다수
12. 기타

내 용 구 성

제 1 막 바람이 불기 전

세상사람들은 戰禍의 위험도 잊은채 위선과 탐욕에 가득찬 모습을 하고 있다. 다소 평온하면서도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자기 자신들도 느끼지만 우리라는 공동체보다 자기 자신의 도선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잊은 채 하루 하루의 삶에 연연해 가며 보내고 있다. 論介도 마찬가지로 어린 나이에 병든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가게를 꾸려나 가는데 열중이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論介는 어머니 박씨와 함께 더욱 궁핍한 삶을 살게 된다.

제 2 막 텅빈 가슴을 메우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숙부 주달무와 함께 살게 되는데, 주달무는 빚으로 인해 김풍헌의 병어리 아들과 강제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전에 또다른 시련이 불어와 어머니 박씨와 먼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관가에 이끌려 나와 심판을 받게 된다. 어머니를 잃게 되는 사건이며 지아비 최경희와의 만남이 이뤄지는 사건이 되었다. 어머니를 대신한 2년간의 관노 생활에서 최경희의 부인인 나주 김씨의 병간호를 하게 된다. 이때, 어머니의 부음을 알게 되고 %나간 사람 처럼 일하다가 나주 김씨의 돌봄에 감동하여 밝고 슬기에 모습을 되찾는다. 나주 김씨의 유언에 따라 최경희는 어여쁘고 어진 논개를 후실로 맞이한다. 논개는 텅빈 가슴을 채우는 사랑의 힘을 최경희와 나누게 된다.

제 3 막 사랑아, 아! 사랑아 -만남과 이별의 교우

논개와 최경희의 사랑이 채 여물기도 전에 최경희는 어머니의 부음으로 논개와 이별을 고하게 되고, 최경희는 어머니 묘를 지키고 있다가 임진왜란의 소식을 접한다. 최경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논개는 최경희가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잠시 만나게 되지만 당시 상황들이 워낙 바쁘지라 제대로 부부간의 이야기도 나누지 못한 채 헤어져야만 했다. 이듬해 경상우병사가 되어 출정하는 남편을 이제 의병이 되어 자신도 따라 나서겠다고 하나, 최경희가 만류한다. 길을 떠난 최경희가 진주성으로 진입했다는 소리를 듣고 님을 갈망하던 논개는 이내 남장을 하고 격렬한 싸움터로 변한 진주성으로 향한다. 충청부사 황진에 의해 무사히 진주성에 도착하여 최경희와 만나게 되나 이때의 잠시가 이승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최경희는 진주기생 초향이 집에 논개를 의탁하고 이내 김천익 장군과 진주성을 끝까지 사수하다 중과부적인 왜적앞에 진주성이 함락되자 남강에 몸을 던져 투신자살한다. 이 소식을 접한 논개는 실신하게 된다.

제 4 막 꽃 중의 꽃이여

논개의 최경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의 복수를 위해 왜장들이 마련한 술자리에 기생으로 초대받기 위해 초향에게 부탁을 한다. 그리고 초향이는 논개를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는 살려고 춤을 추지만 나는 죽으려고 춤을 배운다를 되새기며 왜장을 죽일 방법을 생각한다. 마지막 단장한 모습으로 몸치장하고 최병사 영혼 앞에 사랑아 내사랑아를 마음속에 외치며 왜장들 앞에 나선다. 오늘밤 꽃중의 꽃이요, 그대들을 축복하기 위해 전라도에서 온 귀한 손님이라며 소개를 받고 왜인들 앞에서 절을 하며 왜장 옆에 앉아 술을 따르고 춤을 춘다. 이윽고 이생원을 통해 왜장을 꼬여 왜장을 꼭잡고 성벽아래 남강의 바위위에 유인하여 왜장을 휘어잡으며 강물로 몸을 던진다.